

중국

## 중국 민간문예 저작권 성과 전시 개최

2026. 04. 15.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2026년 3월 23일 베이징 첸먼(北京前门)에서 중국 민간문예 저작권 성과 전시를 개막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단위로 각 지역의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시범사업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전시를 통해 민간문예 저작권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시범사업 성과 전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邓鸿森)과 부사무총장 왕빈잉(王彬颖)은 중국판권협회 이사장 저우후이린(周惠琳),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中央宣传部版权管理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국사무소, 장쑤성위원회 선전부(江苏省委宣传部) 관계자들과 함께 성(자치구·직할시) 단위로 추진된 지역별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시범사업의 성과를 집중 소개하는 전시를 참관함. 첫 전시에 참여한 장쑤성(江苏省)은 13개 시, 91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실물 전시, 사례 소개,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지역 민간문예의 전승 및 혁신 성과를 선보임. 전국 각 시범지역의 업무 성과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전시를 주최한 중국판권협회는 전시를 계기로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체계를 완비하고, 중국 민간문예 저작권 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

### ○ WIPO의 중국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성과 평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邓鸿森)은 중국의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성과 전시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풍부한 민간문예 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체계를 활용한 보호 실천을 통해 전 세계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언급함.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문예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 규범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국의 민간문예가 교류와 상호학습을 통해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힘.

### ■ 참고자료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 [https://www.ncac.gov.cn/xxfb/vwxx/202603/t20260325\\_968756.html](https://www.ncac.gov.cn/xxfb/vwxx/202603/t20260325_968756.html)